

차세대 통신기술 경연장

차세대 통신 기술 '속도' 싸움 치열

1300개 이상 글로벌 업체 참가...역대 최대 규모



전 세계 정보통신 분야의 흐름을 한 눈에 가늠할 수 있는 '3GSM 세계회의(World Congress)'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2월 12일에서부터 15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1300개가 넘는 글로벌 휴대폰 및 통신업체들이 참가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선보인 한편, 6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간 역대 최대 행사로 기록됐다.

올 '3GSM 세계회의'에서 가장 큰 화두는 '모바일 와이맥스(Mobile WiMAX)'로 요약될 정도로, 참가한 대부분의 통신 및 장비 업체들은 모바일 와이맥스 시연에 열을 올렸다.

휴대폰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슬림형 제품들이 각 사의 부스를 점령한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강화한 제품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해외업체들은 신형시장을 겨냥한 다수의 저가형 신제품들도 내놓으며, 올 저가폰 시장에서의 한판대결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3G(세대)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각 업체들이 벌이는 총력전도 숨 가쁘게 전개됐다.



방문객들이 삼성전자 차세대 와이브로 기술인 '와이브로 웨이브2'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차세대 통신 기술 '속도' 싸움 치열

—삼성전자 '차세대 통신 기술 속도전' 주도

이번 3GSM에서 주된 화두로 등장한 '차세대 통신 기술에서의 속도전'을 주도한 것은 단연 삼성전자였다. 1Gbps급 4G 기술 시연과 더불어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와이브로 상용화를 이끌어 낸 삼성전자가 차세대 와이브로 기술인 '와이브로 웨이브(Mobile WiMAX Wave) 2'를 공개 시연하는데 성공하자,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은 연이어 탄성을 자아냈다.

기존 와이브로에 MIMO(Multi Input Multi Output, 다중입출력기술), 스마트안테나(Smart Antenna) 등과 같은 4G(세대)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와이브로 웨이브 2'의 전송 속도는 하향은 최대 40Mbps, 상향은 12Mbps까지 구현할 수 있다. '와이브로 웨이브 2'를 이용하면 MP3 음악파일(3MB) 1곡은 0.7초만에, CD 영화 한 편(700MB)은 2분 45초만에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번 공개시연에서 삼성전자는 '와이브로 웨이브 2' 시스템과 단말기를 이용, 하향 34Mbps, 상향 8Mbps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 시연에 성공했다. 이는 현존하는 이동통신 기술 중 가장 빠른 수준이다. 스프린트와 인텔, 모토로라, 노키아 등과 함께 공동으로 전시관을 마련한 삼성전자는 와이브로 공동 전시관내 설치된 스프린트와 인텔의 각 시연 코너에 와이브로 시스템과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3시간 와이브로 실시간 시연도 완벽하게 성공,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LG전자 '3G LTE' 상용 기술을 선보여 주목

그 동안 차세대 통신 기술 분야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던 LG전자도 '3G LTE(Long Term Evolution)' 상용 기술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LG전자는 특히, 통신장비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인 노텔과 공동으로 상, 하향 모두 20Mbps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3G LTE' 상용 기술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LG전자가 이번에 선보인 '3G LTE' 상용 기술은 현재 상용화된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와 HSUPA(고속상향패킷접속)에 비해 동일 주파수 대역폭에서 각각 2배와 4배 이상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휴대폰을 통해 MP3 파일 한 곡(3MB)을 1.2초만에, 영화 한 편(700MB)은 4분40초만에 무선으로 송수신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LG전자가 공개 시연에 성공한 3G LTE 기술은 단순한 기술 시연 단계를 벗어나 휴대폰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LG전자는 또 기술적인 난제로 평가받던 'MIMO' 시연함으로써 한 개의 안테나를 가진 단말기로 MIMO 채널을 형성하며, 전송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업계 최초로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안테나를 이용, 데이터 송수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MIMO 기술과 단일 채널에서 주파수와 시간을 나눠 데이터를 전송하는 'OFDM(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기술 등 '3G LTE' 핵심 기술을 휴대폰을 통해 상용화하는데 적합하도록 자체 개선했다는 점도 괄목할만한 진전으로 평가 받았다.



방문객들이 LG전자가 선보인 '3G LTE(Long Term Evolution)' 상용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슬림형 특화폰 '인기' ...메탈 소재 사용 늘어 해외 업체, 고가폰에서 저가폰까지 다양한 신제품 선보

'3GSM 세계회의의 2007' 행사에 참가한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전시 부스에는 뮤직을 포함해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특화폰'이 유난히 많은 공간을 차지했다.

지난 2004년 7월 모토로라가 '레이저(RAZR)'를 출시한 이후, 강타하기 시작한 '슬림화' 바람은 이번 전시회에 출시된 대부분의 휴대폰에 기본 디자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프리미엄 전략을 표방하고 있는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고가폰을 위주로 한 라인업을, 저가폰 시장 강화 정책을 공개하고 나선 해외 업체들은 신형시장을 타깃으로 한 다수의 신모델을 출시해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삼성-LG전자, 최첨단 프리미엄 제품 공개 ●○●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새롭게 주력제품군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울트라에디션' 2차 시리즈를 전격 공개, 이목을 끌었다. 전작인 '울트라에디션 I'은 지난해 연말까지 50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히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울트라에디션 II'는 전세계 휴대폰 중 가장 얇은 5.9mm 두께의 바(Bar) 타입 디자인을 채택한 '울트라에디션 5.9'를 포함해 고급스러운 메탈소재를 채용한 폴더형 휴대폰 '울트라에디션 9.6'과 스타일리시한 슬림 슬라이드 디자인을 채택한 '울트라에디션 10.9', 초고속 HSDPA 기능을 탑재한 슬라이드폰 '울트라에디션 12.1' 등 4가지 모델로 포진됐다.

프리미엄 제품군답게, 4가지 제품 모두 300만화소 카메라는 물론 초고속 인터넷 접속과 블루투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들을 내장했다. 특히, 이번 전시기간 내내 삼성전자 부스내에 별도로 마련된 울트라에디션 전용 코너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었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멀티미디어 강화 제품이 주요 트렌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울트라 스마트 700' 과 '울트라 스마트 F520', 울트라 스페셜 라인업의 '울트라 비디오(모델명: F500)', '울트라 모바일(모델명: F510)', '울트라 메시징(모델명: i600)', 심비안 OS를 탑재한 HSDPA 심비안 스마트폰(모델명: i520) 등 다양한 특화폰들도 전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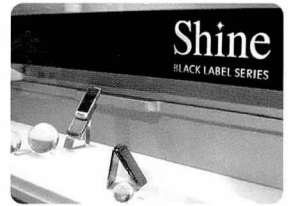
'초콜릿폰'을 계기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른 LG전자는 야심작인 '샤인 패밀리'를 공개, 전시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3G HSDPA와 폴더, 바(Bar) 등 다양한 모델들로 구성된 샤인 패밀리는 앞서 출시된 '샤인 슬라이드폰'과 같이 리얼 메탈 소재를 적용하면서 신소재에서 오는 스타일리시함과 함께 견고함과 내구성을 동시에 부각시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했다.

슈나이더사 인증, 2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한 '샤인 3G'는 오토 포커스(Auto Focus)와 512MB 멀티미디어 전용메모리를 장착했다. 9.9mm 두께의 '샤인 바(Bar)'는 2.7세대 EDGE 방식에, 200만화소 카메라와 블루투스 등 첨단 기능들을 내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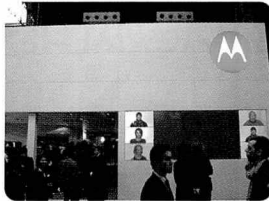


삼성전자 부스에 별도로 마련된 '울트라 에디션 시리즈' 코너



LG전자는 '초콜릿폰'에 이어 올해의 전략제품인 '샤인폰'을 전시했다.

● 노키아-모토로라-소니에릭슨, 다양한 제품 라인업 출시 '눈길'



이번 행사에서 노키아가 공개한 제품 중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HSDPA와 GPS 내비게이션 기능을 장착한 WCDMA폰 6100 모델(무게: 123g)이다.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현재 위치에서 가고 싶은 특정 지역을 입력하면 도보와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의 도달 시간과 기타 정보 등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내

용으로 메인 화면에 표시된다.

노키아가 선보인 DVD와 같은 고화질의 32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한 N93 모델도 보는 이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이 모델은 가지 형태의 스크롤 키로 조정되며, 멀티미디어 메시징 기능을 내장했다. 또한, 인터넷 태블릿 OS 2007 에디션을 내장한 N800 제품도 눈길을 끌었다. 이 모델은 인스턴트 메시징과 미디어 플레이어, 인터넷 라디오 등의 기능을 갖췄다.

모토로라 부스에는 이른바 '인체공학폰'으로 불리는 '모토라이저(모델명: MOTORIZR Z8)' 제품을 구경하느라 많은 방문객들이 몰렸다. 슬라이드형의 이 모델은 상판을 밀어 올릴 경우, 하판이 한번 휘어지면서 통화하는 사람의 입과 수화기가 최대한 가깝게 다가와 기존의 슬라이드형 제품이 가지고 있던 통화품질상의 단점을 보완했다. 2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뮤직폰의 대명사인 소니에릭슨은 신홍시장을 겨냥한 저가의 '워크맨(모델명: W200)'을 공개했다.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선보인 이 모델은 FM라디오 수신이 가능한데다, 최대 18시간까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소니에릭슨이 선보인 'W950' 제품도 주목을 받았다. 이 모델은 4GB의 내장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 4000곡을 저장할 수 있으며, FM 라디오와 최대 10시간의 연속재생 기능, 터치스크린 등을 장착했다.



노키아는 HSDPA 기능과 내비게이션 기능이 장착된 WCDMA폰 6100 모델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모았다.



모토로라가 '선보인 '인체공학폰'으로 일컬어지는 'MOTORIZR Z8' 모델



소니에릭슨 전시관에는 '뮤직폰' 등을 관람하는 방문객들로 장사진을 쳤다.

3G (세대) 시장 주도권 확보 전쟁



...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 신경전 치열

올해부터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3G시장을 놓고, 각 업체들이 치열하게 전개한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도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국내 이동통신업계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과 KTF 등이 앞다퉀 '전쟁' 확대를 자청하고 나서, 국내에 이어 '제2라운드'는 해외에서 돌입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LG전자, 3G폰 단독공급업체 선정 - 삼성전자, 신모델 3G폰 대거 공개 ●●●

LG전자는 이번 '3GSM 세계회의'에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 연합인 GSMA(GSM Association: 비동기식 이동통신사업자 연합)가 추진한 3G폰 공동 구매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낙점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LG전자의 KU250 모델은 노키아 등 전세계 8개 휴대폰 제조사가 내놓은 17개 제품 후보들을 물리치고 단독 공급 모델로 뽑혔다.

LG전자측은 "이번 선정을 통해 제품 공급 우선협상권을 부여 받아 연내 1000만대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를 기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3G폰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00만대 수준에 머물렀던 3G폰 판매량을 올해는 1820만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LG전자 현지 홍보도우미들이 GSMA(GSM Association)가 추진한 3G폰 공동 구매 프로젝트에 선정된 LG-KU250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초고속 HSDPA 기능을 장착한 신규 3G 휴대폰 라인업을 대거 공개한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7.2Mbps 속도(다운링크 기준)의 HSDPA 서비스를 지원하는 '울트라 스마트폰 F700'을 공개, 관람객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차세대 터치스크린 방식을 채택한 이 제품은 500만화소 카메라에 퀴트 슬라이드 키패드 등을 채택했다.

삼성전자는 또 현재 HSDPA 서비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1.8Mbps급 HSDPA 서비스를 지원하는 '울트라 스마트 F520'과 심비안 운영체제(OS)에 HSDPA 기술을 적용한 'HSDPA 심비안 스마트폰(i520)' 등의 제품들도 함께 전시했다. [3]